

사회 향한 첫걸음,
도전과 끈기로 발걸음 이어 나가길

KAISTian의 힘찬 도약 향한 따스한 응원

지난 2월, KAIST는 2024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선 박사 756명, 석사 1,564명, 학사 694명으로 총 3,014명이 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올해에는 KAIST 개교 50주년을 맞아 신설된 '융합인재학부'의 첫 졸업생도 배출됐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졸업생 전원이 참석한 것은 두 번째로 학교 기능이 정상화됐음을 알리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월 16일, KAIST 류근철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졸업생 3,014명의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코로나 19 이후 두 번째로 졸업생 전원이 참석한 학위수여식이었다. 이로써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교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됐음을 알리는 한편으로는, KAIST 개교 50주년을 맞아 신설된 '융합인재학부'의 첫 번째 졸업생이 탄생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떼기도 했다. 또한 이번 학위수여식의 상징성을 증명하듯, 사회를 향해 첫발 내딛는 졸업생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2020년 개설된 융합인재학부는 학생이 교과과정을 직접 선택해 이수한 후, 학점 대신 'P·NR(Pass·No Record)'로 성적을 표기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해당 학부의 1호 졸업생인 고경빈(24), 김



백호(23) 학생은 각각 개별 맞춤 전공인 화학생물학과 정서과학 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고경빈 학생은 “학분 분야를 다양히 경험하고, 시간을 들여가며 관심 분야와 진로를 결정하고 싶었는데, 제도 덕분에 학점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자세로 도전하고 탐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백호 학생은 “융합인재학부에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 지부터 지도교수님 배정까지도 스스로 결정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야 할 길을 찾게 됐다”고 전했다.

명예과학기술학박사 학위를 받은 조수미씨는 2021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초빙된 후, '조수미 공연예술연구센터'를 설립해 인공지능 기반 음악 합주 기술을 활용한 무대 공연, 가상 합성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목소리 연구 등을 자문해왔다.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과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학생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정서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 ① 학위수여식이 열린 류근철 스포츠컴플렉스
- ② 2020년 신설된 융합인재학부에서 첫 졸업생이 탄생했다. 융합인재학부는 학생이 각자 교과과정을 선택해 개별 맞춤 전공을 이수하는 학부로, 고경빈(왼쪽)씨는 화학생물학, 김백호(오른쪽)씨는 정서과학 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 ③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브로드컴의 흑 탄 회장(왼쪽)과 성악가 조수미(가운데)씨가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흑 탄 회장은 총장자문위원회 해외위원으로서 KAIST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조수미씨는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서 KAIST의 연구 지평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여하기도 했다. 흑 탄 회장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KAIST 총장자문위원회 해외위원을 역임하며 KAIST의 국제화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KAIST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왔다. 조 교수는 박사학위 수여 소감 연설에서 “성악가의 목소리와 달리 연구자로서의 통찰과 창의성은 많이 쓴다고 상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밤의 여왕 아리아’가 노래하는 나의 삶에서 뜻깊은 작품이 었듯, 여러분도 저마다 갖고 닦은 자신만의 ‘밤의 여왕 아리아’를 늘 아낌없이 펼치고 즐기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방문으로 세 번째 KAIST를 찾은 윤



석열 대통령 역시 졸업생을 격려하는 축사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랑 카이스티안(KAISTian) 여러분이 이뤄낸 값진 성취와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분명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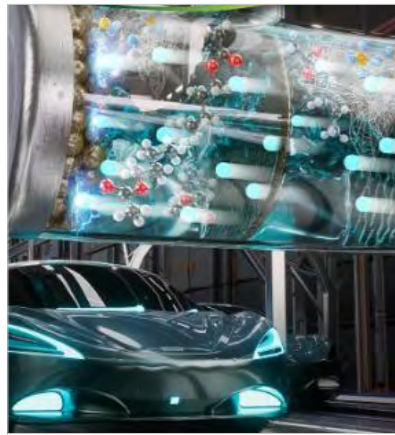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이광형 KAIST 총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평소의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꿈꾸는 삶을 이어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실패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성공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어제와는 다른 생각, 남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색으로 빛날 것”을 기원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KAISTian](#)



+ 1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계산데이터 전격 공개

KAIST 물리학과 안재욱 교수 연구팀이 1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로 조합 최적화 문제를 계산해 계산 결과 데이터베이스와 계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조합 최적화 문제 중 하나인 최대 독립집합 문제는 SNS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찾는 문제, 전력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법을 찾는 문제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문제다. 지난 2023년 KAIST 연구진은 20큐비트급 리드버그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최대 독립집합 문제의 풀이를 시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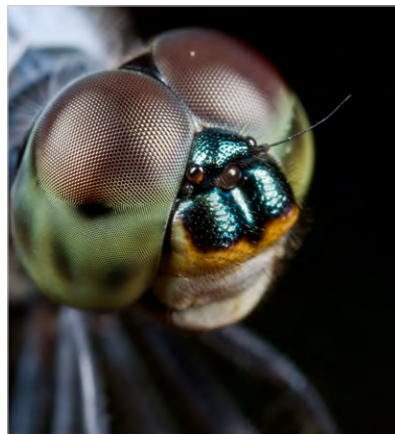
>> 더보기



+ 4.55V 고전압 리튬이온전지 전해액 기술 개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남순 교수 연구팀이 고전압 조건에서 리튬이온전지의 높은 효율과 에너지를 유지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해액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전해액은 점도가 낮으면서 고전압에 안정적인 용매를 사용하였으며 안정적인 전극-전해질 계면 반응을 확보할 수 있는 첨가제 기술을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 더보기



+ 반도체가 곤충처럼 사물 움직임 감지한다

신소재공학과 김경민 교수 연구팀이 다양한 멤리스터 소자를 융합해 곤충의 시신경에서의 시각 지능을 모사하는 지능형 동작인식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곤충의 시신경계를 모방하여 초고속, 저전력 동작이 가능한 신개념 '지능형 센서' 반도체의 개발로 다양한 혁신적 기술로 확장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교통, 안전,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산업과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 흡연과 음주가 구강암 촉진 밝혀

KAIST 의과대학원 김준 교수 연구팀이 발암 위험 인자인 흡연과 음주가 구강암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흡연 및 음주가 직접적인 DNA 손상뿐 아니라 산화스트레스를 통한 전사 조절로 구강암의 증식을 촉진하는 경로를 밝혀서 항암제 개발의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

>> 더보기



+ Team KAIST, 국제 해양로봇 경진대회 준우승

KAIST 기계공학과 김진환 교수, 전기및전자공학부 심현철 교수 연구실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고 파블로 항공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Team KAIST가 국제로봇경진대회인 MBZIRC 마리티엄 그랜드 챌린지에서 최종 준우승을 차지하고 총상금 65만 달러를 획득했다. 해양로봇 경진대회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본 대회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후원하고 아부다비 과학성 산하 기관인 아스파이어가 주관하는 총상금 3백만 달러 규모다.

>> 더보기



+ 2월 과학기술인상에 김정 기계공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KAIST 기계공학과 김정 교수를 선정했다. 김 교수는 인간 촉각과 감각 전달 원리를 모방해 인간처럼 촉각을 느낄 수 있고 상처 치유도 가능한 대면적 로봇 피부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간 피부의 다층 구조와 촉각을 느끼는 원리를 모사해 하이드로젤과 실리콘 엘라스토머로 다층 구조를 만들고 촉각 센서를 분산 배치한 로봇 피부를 개발한 바 있다.

>> 더보기



+ 드림워크 개발 명현 교수, 올해의 KAIST인 상 수상

KAIST가 '올해의 KAIST인 상' 수상자로 명현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를 선정했다. '올해의 KAIST인 상'은 탁월한 학술 및 연구 실적으로 국내·외에서 KAIST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1년에 처음 제정됐다. 23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명현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로봇 자율보행 신기술 '드림워크' 개발 및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과 3D 위치인식 및 맵작성 등의 신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더보기



+ 이나래 교수, 한국인 최초 전략경영학회 우수 연구자로 선정

KAIST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교수가 국제 전략 경영학회의 우수 전략 경영 연구자로 선정됐다. 국제 전략 경영학회는 전략 경영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회로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3,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해당 상은 본 학회가 전략 연구 재단을 통해 매년 1~2명 내외로 선발해 수여하고 있으며, 한국인 연구자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 더보기



+ 현대차그룹과 '차세대 라이더 시스템' 공동연구

KAIST가 '현대차그룹-KAIST On-Chip LiDAR 개발 공동연구실'을 대전 본원에 개소했다. 공동연구실은 발전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완전자율주행인 4~5단계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한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활용해 센서의 크기는 줄이는 동시에 성능은 높일 수 있는 온칩 센서 제작 기술과 차세대 신호검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목표다.

>> 더보기



+ KAIST-생명연, '열린길'로 연결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이 담을 허물고,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생명연은 2월 15일 오전 10시 생명연과 KAIST 간 연결로인 '열린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열린길은 생명연 복리후생동에서 KAIST 유레카관 사이에 설치한 계단과 경사로로 지난해 6월부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두 기관은 이윽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담장으로 인해 왕래하는 데 도로로 10분 이상이 걸렸지만, 열린길로 인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 더보기



+ 4개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KAIST 4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우리 대학 4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했다. 정부가 2013년 도입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인증하고 있다.

>> 더보기



+ '생성 AI와 헬스케어의 미래' 워크숍 개최

KAIST가 2월 5일 오후 '생성AI와 헬스케어의 미래' 워크숍을 대전 본원에서 개최했다. KAIST 디지털 바이오헬스 AI연구소(센터장 예충렬)의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최신 연구 동향과 응용 사례가 공유됐다.

>> 더보기